

자동화로 생산과잉 초래

- 편집부 -

“제 주도 양계산업은 생산자들의 단합이 없으면 생산과잉으로 유통질서가 문란해져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라고 본회 제주지부 최희식(채란, 60세)지부장은 강조하고 있다.

닭 30여수로 지난 '62년부터 양계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는 2만여수의 채란계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데 최근들어 시설자동화로 사육수수가 증가, 생산과잉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제주도의 산란계수수는 약 70만수가 되는데 1일 5천판(15만개) 정도가 남아돌아 처리에 고충이 많다. 채란업자는 총 51명이고 그중 47명이 지부에 가입하고 있으며 평균 사육규모는 1만5천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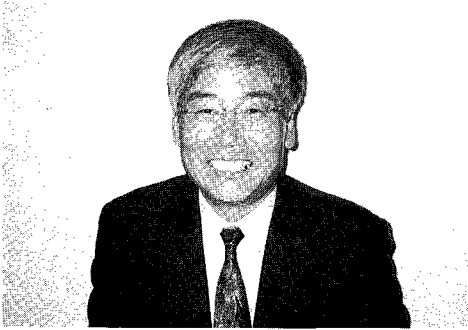
◀ 최희식 지부장

다행히 육지보다 질병이 적어 피해는 없으나 ILT, ND, CRD, 콕시듐 등 주로 호흡기성 질병이 발병하는 정도이고, 원자재를 육지에서 반입하기 때문에 생산비가 계란 개당 6~10원은 더 높다고 설명하면서 25년전부터 난가안정기금을 조성하여 개당 1원50전에 출발하여 현재는 4~7원까지 수수료를 떼어 육지로 반출할 때의 비용과 지부 운영비에 사용하는데 양계단지에 20만수, 3만수 이상 농가의 증가로 물량이 증폭되어 계란처리에 문제점이 발생, 때로는 단합마저 되지 않는 경우까지 발생할 정도로 어려움이 많다고 지부장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현재 난가는 부산시세를 기준으로 반출비용과 운영비를 감안하여 육지시세와 맞추기 때문에 10~15원이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실정이다.

특수란 생산은 거의 없는 반면 노계처리 때문에 고민은 더 클 수 밖에 없다. 지난 12월 중순경에는 수당 100원에도 출하가 되지 않아 계란생산이 더 증가할 수 밖에 없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앞으로 복제주군과 남제주군에 1개소씩 2개소의 양계단지가 생겨날 전망이다 이미 조성된

복제주군의 양계단지가 유통에 대안을 찾지 못하면 제주도 채란업은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최지부장의 견해이며 채란업자들이 가장 먼저 단합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사안으로 꼽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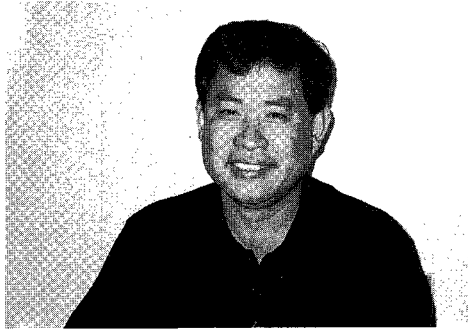
◀ 유형재 채란분과 위원장

한편 유형재(52세) 채란분과 위원장은 '70년 제주도에서는 처음으로 케이지 사육(당시 1,000수)을 시작한 장본인으로 그 이전에는 충북 청주에서 종계업에 종사한 적이 있으며 현재는 복제주군 구좌읍에서 2만5천수 규모의 채란업을 경영하며 김녕양계작목반장을 겸직하면서 제주도내 양계장의 90%가 밀집된 복제주군을 중심으로 채란업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정부에서 지역적인 특수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무조건 시설만을 늘리는 정책으로 제주도의 계란유통은 큰 난관에 빠져있습니다.”라고 어려움을 전해 주는 유위원장은 점점더 늘어나는 잉여물량 처리를 위해 제주계란판매상인조합은 물론 부산지역과의 협조관계를 통해 유통의 활성화를 꾀하고 농가소득을 늘리는데 최선의 경주를 하고 있다.

현재 제주에서 생산되는 계란 전량은 계란직판장에서 13명의 직원에 의해 운영, 판매되는데 '95년부터 계란 1개당 1원씩 적립금을 모으

고 있어 곧 공동집하장(GP센터) 건립으로 농가에서의 선별작업을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또한, 법인등록을 통해 조합형태로 한단계 성숙한 양계업을 경영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 이원태 사무장

제주지부의 실질적인 일을 도맡아 직접 발로 뛰고 있는 이원태 사무장은 '95년 5월 사무장을 맡아 회원들간의 단결과 결속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사료업계에 근무한 것이 인연이 되어 4년전부터 양계를 시작하여 현재 1만5천수 규모의 산란계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생산자와 상인들간의 직거래가 이루어지던 과거와는 달리 계란판매가 직판장을 통해 일괄 처리되는 시점에서 생산자들은 주인의식을 갖고 양계업에 임해야 할 때입니다.”라고 강조하는 이사무장은 회원농가 대부분이 재래식 사육 방법으로 노동집약적인 경영을 하고 있어 생산 조절과 연계해 이를 탈피해 나가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

또한 향후 모임의 활성화와 단합을 위하여 생산자들에게 사양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재보다 좀더 나은 조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는데 제주지부를 구심점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양계]